

맥결리현비요(脈訣理玄秘要), 조선으로 이어진 송대 맥학의 전통

김기왕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맥경脈經과 맥결脈訣

한의 진단을 전문적으로 다룬 문헌으로서 가장 권위를 갖는 원전을 한 권 꼽는다면 서진西晉 시기에 저작된 왕숙화王叔和(본명 왕희王熙, 210-258)의 『맥경脈經』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은 “경”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의가들 사이에 많이 읽히지 않았고 훗날 “맥결脈訣”이란 이름의 책이 등장하여 맥학의 기본 참고 문헌으로 활용되게 되었다. 송대 의가 진공석陳孔碩은 『맥경』을 새로 펴내며

…… 따라서 『맥결』이 나오자 『맥경』이 자취를 감추었음을 알 수 있다. 의사들은 (맥경을) 읽지 않고 서적상도 팔지를 않는다. 목판도 결국 없어지게 되었다. 지금의 속의俗醫들은 『맥경』의 내용을 물으면 모두들 『맥결』의 내용을 암송하며 답한다.)

라고 하였다. 이처럼 『맥경』이 많이 읽히지 않게 된 것은 『맥결』이 한 사람의 학설을 일관되게 기술한 책이 아니

라 서진 시기에 전래되고 있던 여러 책의 문장을 다소 느슨한 편집 체제 아래 통합, 수록한 책이라는 데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된다. 새로운 출토 문헌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여 서진 이전의 고대 한의 문헌에 관한 연구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오늘날에도 『맥경』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정보의 단절이 심했던 전근대 시기에는 그런 어려움이 더 컸으리라 생각된다. 더구나 『맥경』은 한 사람 또는 한 학파의 일관된 체계에 따라 저작된 것이 아니기에서 서로 융합될 수 없는 제각각의 내용이 산재되어 있어 맥학脈學의 학습에 기본 교재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맥학의 기본서로서 『맥경』이 가졌던 결함을 메꾸어 준 책이 바로 『맥결脈訣』이었다. 본디 『맥결』은 고양생高陽生이란 인물이 저술하였으나 “왕숙화맥결王叔和脈訣”이란 이름으로 유통되었다. 실제 이 책이 저작된 시기는, 오늘날의 고증²⁾에 의하면, 북송 시기라고 한다. 이 책이 비교적 활발히 유통되었던 원·명 시기에도 이 책은 위서偽書임이

1) 乃知《脈訣》出而《脈經》隱。醫者不讀，鬻者不售，板遂亦不存。今之俗醫，問以王氏書，則皆誦《脈訣》以對。(陳孔碩，廣西漕司重刻脈經·序)

2) 方春陽. 高陽生并非六朝人. 浙江中醫雜誌. 2003; 3: 230.

알려져 의가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였으나 맥학의 역사에 미친 영향은 작지 않았다³⁾. 조선에서도 『맥결』의 영향력이 컸는데, 단적인 예로, 『맥결』의 제가 주석을 종합한 『찬도방론맥결집성纂圖方論脈訣集成』은 조선에서 역대로 의사 고시(의과 및 취재)의 기본 교재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송대에는 고양생의 맥결(『왕속화맥결』) 외에 “맥결”이란 이름을 표방한 또 다른 저술이 등장하였다. 하나는 최가언崔嘉彦의 『맥결』(『서원맥결西原脈訣』)⁴⁾이고 또 하나는 최가언의 제자인 유개劉開에 의해 저술된 『유삼점맥결劉三點脈訣』이다. 이 『유삼점맥결』의 다른 이름이 바로 이 글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맥결리현비요脈訣理玄秘要』다.

고양생의 맥결을 포함하여 송대에 출현한 “맥결”들은 모두 “칠표팔리구도七表八裏九道”의 맥상 분류를 따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맥경』의 「맥형상지하비결脈形象指下秘訣」에 등장하는 24종의 맥상을, 표증表證에 나타나는 7개의 맥상, 이증裏證에 나타나는 8개의 맥상, 그리고 기타의 9개 맥상으로 분류한 것으로서 고양생이 『왕속화맥결』에서 제시한 이후 한동안 맥상 분류의 기본 방식으로 사용된 듯하다. 유개의 맥결, 즉 『맥결리현비요』에서도 “칠표

팔리구도”의 맥상 분류 체계가 확인되지만 맥상의 최소 요소를 제시하고 이를 조합하여 각각의 맥상을 규정하려는 시도가 보인다. 아래에 이를 설명한다.

맥상의 도식화

맥상脈象을 한 데 모아 설명한 최초의 저작인 『맥경』의 「맥형상지하비결脈形象指下秘訣」에는 24종의 맥상 각각에 대해 개별적인 묘사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허맥虛脈은 “꼭 누르면 힘이 없고 가볍게 누르면 넓고 넓게 공허하다”⁵⁾고 설명하고 있다. 『맥결리현비요』는 다양한 맥상의 지감指感을 최소한의 요소로 환원하여 이들의 조합으로 각 맥상의 개념을 설명하는 체계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예를 들어 규맥芤脈은 부浮의 속성과 무력無力의 속성을 동시에 가진 맥으로 규정된다. 기본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 책은 부, 침, 지, 삭의 네 가지 요소를 꼽고 있고 기타 요소로서 유력有力·무력無力, 대大·소小(細), 장長·단短과 현弦(긴장도), 유리流利(유리도)를 언급하고 있다.

이런 기본 요소 조합식의 맥상 설명은 도형을 이용한 개념 설명으로 이어진다. 이 책에 등장하는 맥상강기도脈象綱紀圖가 그것이다(그림 1). 이 그림에서는 25종의 맥상을, 부, 침, 지, 삭과 촉지 위치, 유력·무력, 장단, 대소, 유리여부의 요소를 조합하여 설명하고 있다.

5) 按之不足，隱指豁豁然空。

3) 王大林. 偽書《脈訣》對宋以後脈學發展的影響. 南京中醫藥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3; 2: 70-72.

4) 실제로는 최가언의 간접사승間接師承 의가인 장도중張道中의 저작이라고 함. 張同君. 《崔真人脈訣》辨偽. 中醫雜誌. 1990; 34(10): 47-49.

이러한 도해 방식은 특히 일본의 의가들이 새로운 저술 방식을 확립하는데 단초가 되었는데, 현대의 학자 정금생鄭金生(1946-)은 일찍이 아래와 같이 평한 바 있다⁶⁾.

결들여 말하고 싶은 것은 『계적집啓迪集』에서 말하는 “격식화”의 표현 방식이 정말 불교의 “과소방식科疏方式”을 본떠서 만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필자는 과소방식에 대해 잘 모르지만 중국 의서 속에는 이와 비슷한 표현 형식을 오래전에 채용했었다는 것은 알고 있다. 『계적집』의 형식과 제일 비슷한 것은 남송 『맥상강기도脈象綱紀圖』인데 이 그림에서는 하나의 맥을 셋으로 나누고 셋을 다시 하나로 합치는 것을 나타내었다. 『맥결리현비요』는 서원학과西原學派의 주요 맥학脈學 저작 중 하나이다.

이 학파는 남송 및 원대 사이 강서 노산盧山에서 형성되었다. 이 학파는 『왕숙화맥결王叔和脈訣』로부터 이시진李時珍의 『빈호맥학瀕湖脈學』 사이의 과도작용을 한 다음 거의 중적을 감추었다. 그러나 이 학파의 저작은 오히려 일본에서 고스란히 보존되어왔다. 맥상강기도는 『맥결리현비요』에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인이 소장한 송·최진인崔眞人(최가언崔嘉彦)의 『맥결비지脈訣秘旨』에서도 볼 수 있다. 일본 의가들이 맥상강기도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계적집啓迪集』의 표현 방식이 『맥결리현비요』의 영향을 받은 결과라는 것을 거의



Figure 1. Maixianggangjitu (脈象綱紀圖, The illustration of conceptual structure of arterial pulse types) in *Maijuelixuanbiyao* (脈訣理玄秘要, The hidden essence of Maijue's theory and occultness).

배제할 수 없다.

그림 1(Figure 1)에 보이듯이 맥상강기도에서는 규맥芤脈이, 가압력을 줄여갈 때 잘 잡히는, 소위 “거지유여舉之有餘, 안지부족接之不足”한 반응을 보이는 맥이면서 천층淺層에서 포착되는 맥이며 힘이 없는[無力] 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타의 맥들도 이와 같이 몇 가지 요소의 조합으로 규정하였다. 개별 맥

6) 정금생鄭金生 작, 정현월鄭賢月 역(일부 수정). 중·일·월·한 전통의학의 상호교류와 촉진. 제2회 한중일 의사학회 합동심포지움 논문집 「월경하는 전통, 비상하는 문화 - 한자문화권의 의사(醫史)」. 2010. 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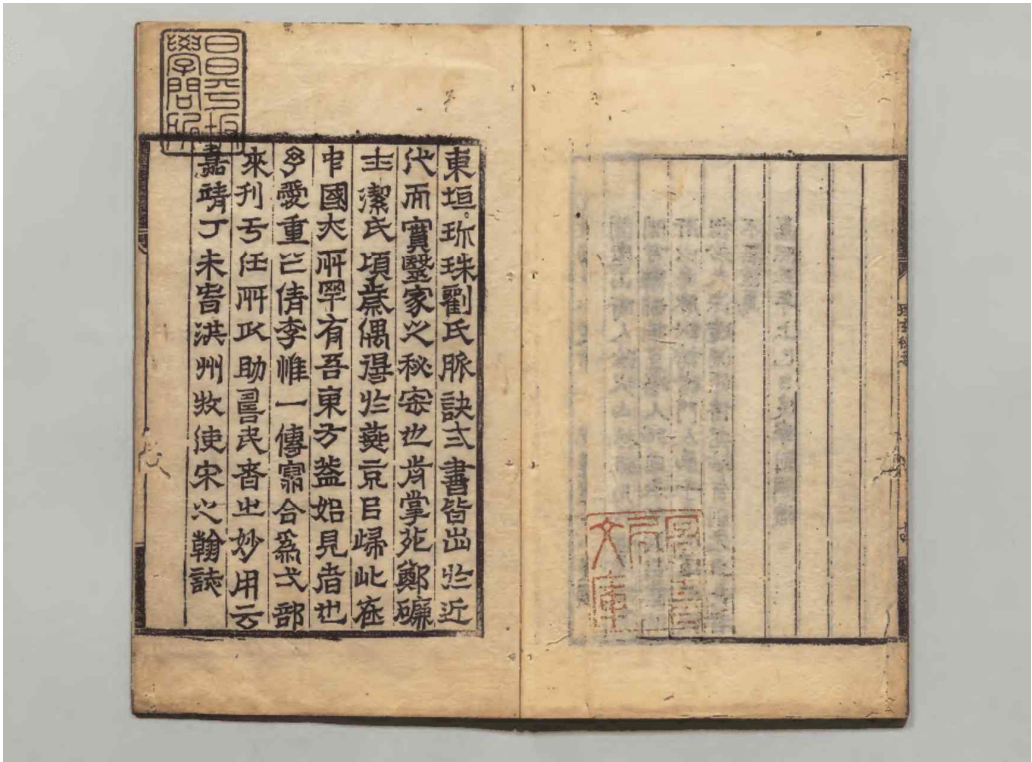


Figure 2. The page explaining how the Joseon edition of *Maijuelixuanbiyao* (脈訣理玄秘要) was published.

상이 기본 요소의 조합으로 규정될 수 있는가 하는 점과 맥상의 기본 물리량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오늘날에도 맥진 연구의 주요 주제라 할 수 있는데 이미 송대에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맥결리현비요』는 잘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 『맥결리현비요』의 판본은 남아 있는 것이 많지 않다. 중국에서는 일찍이 찾아보기 어렵게 된 듯하며 후대에 『유삼점맥결劉三點脈訣』이란 이름으로 전사되었다. 다행히 조선에서는 비

교적 이른 시기인 1528년에 판각된 『맥결리현비요』를 수입하여 보급하였고 이 책이 일본에 전해져 현재 일본 국립공문서관 내각문고內閣文庫에 보존되어 있다. 아래에 이 책에 대해 설명한다.

송지한, 조선에 유개의 맥결을 보급하다

내각문고본 『맥결리현비요』는 앞 뒤 표지를 제외한 면 수가 32쪽인, 비교적 작은 분량의 책이다. 이 책에는 1528년(명·가정嘉靖 7년)에 지은 명나라 사마태司馬泰(1492-1563)의 서문(각맥결리현

7) 명대에 『의요집람醫要集覽』(1566)에 수록되었고 청대에 『복진자유삼점맥법復眞子劉三點脈法』(1763)이란 이름으로 간행되었다.

비요서刻脈訣理玄秘要絃)이 실려 있고 책의 끝 부분에 조선의 관리였던 송지한宋之翰(1493-1563)이 1547년(조선·명종 2년)에 지은 발문跋文이 실려 있다. 서문과 발문을 통해, 이 책이 명나라에서 판각되었고 조선에 수입된 후 다시 판각되어 보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송지한은 발문에서 이 책의 입수·출판 경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동원(이고李景)의 『진주낭眞珠囊』과 유씨(유개劉開)의 『맥결脈訣』, 이 두 책은 모두 근래에 나왔으나 실로 의가들이 꼭꼭 감추어 두었던 책이다. 마침 장원掌苑(원예 담당관)⁸⁾ 정렴鄭謙(자: 사결士潔, 1506-1549)이 근년에 북경에서 우연히 이 책을 얻어 돌아왔다. 이 두 책은 중국의 큰 기관에도 희소한 책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아마도 처음 보이는 책일 것이다. 내가 이를 애지중지했었는데 사위 이유일李惟一⁹⁾이 이를 옮겨 적어 (두 책을) 합하여 하나로 만들었고¹⁰⁾ 이제 내가

8) 정렴은 한 때 장악원掌樂院의 관리로 있었던 사람이다. 위 발문에서 그의 직함이 음악과는 거리가 먼 장원掌苑으로 소개된 것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장악원 관리는 상림원上林園(훗날 장원서掌苑署로 개명됨)의 관직을 겸하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김우진, 『사리영웅기』 소재 상림원과 전악서의 악공 연구, 제4회 세계한국학대회 논문집, 2008). 송지한이 정렴을 장원으로 소개한 것도 이런 사정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9) 1584년 무과 합격자 명단에 이유일李惟一이라는 이름이 보인다. 그는 1531년 출생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어 조선본 『맥결리현비요』가 간행된 1547년에 17세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 나이를 고려하면 그는 위의 발문에 보이는 이유일과 다른 인물, 즉 동명이인일 가능성도 있다.

부임한 곳에서 간행하게 되었으니 이로써 백성을 장수하게 하고 삶을 풍부하게 할 묘한 효용에 도움을 줄 것이라 이르노라.

가정 정미년(1547년) 봄 홍주(홍성) 목사 송지한이 적다.¹¹⁾

발문에 등장하는 정렴은 도학자로 잘 알려진 인물로 부친을 따라 사신단의 일행으로서 중국에 여러 차례 다녀온 사람이다. 『동의보감』의 저자 허준에게도 영향을 준 인물로 알려져 있다. 정렴이 언제 북경에서 『맥결리현비요』를 구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1538년 정렴의 부친 정순봉鄭順朋(1484-1548)이 사신으로서 중국을 방문한 기록¹²⁾이 있는데, 이 때 현존본 『맥결리현비요』의 저본이 정렴에 의해 구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현존본 『맥결리현비요』를 간행한 송지한의 묘소가 경기도 양주에 지금도 남아 있다(Figure 3).

이 묘지에는 송지한의 아들 송인宋寅(1517-1584)이 세운 비석(묘갈墓碣)이 함께 남아 있어 이 비석에 새겨진 글을 통해 송지한의 행적을 살펴볼 수 있다.

『맥결리현비요』의 발문에서 홍주 목

10) 내각문고본 『맥결리현비요』는 『진주낭』과 합책合冊되어 있지 않고 『맥결리현비요』만 한 권의 책으로 제본되어 있다.

11) 東垣《珍珠》、劉氏《脈訣》二書，皆出於近代，而實醫家之秘密也。肯掌苑鄭謙士潔氏，頃歲偶得於燕京以歸。此在中國大所罕有，吾東方蓋始見者也。予愛重之，倩李惟一傳寫，合爲一部，來刊于任所，以助壽民厚生妙用云。

嘉靖丁未春洪州牧使宋之翰識。

12) 金正國，思齋集 遙別耳齡赴燕



Figure 3. The tombs of Jian Song and his wife (left), the tombstone containing his biography at the entrance of the tomb (middle), and the passage explaining he was appointed the Hongseong governor in 1545 (right). Photos by Professor Baik, You-sang (白裕相, Kynghee University).

사로 있을 때 홍지한이 이 책을 간행했다 했는데, 비문에서도 그가 홍성의 수령으로 근무했음이 나타나 있다. 비문에 의하면 책을 간행하기 2년 전(1545년) 홍주 목사로 부임했음을 알 수 있다(Figure 3, 오른쪽 사진). 비문에는 그는 28세 되던 해(1523년) 장원서掌苑署 근무를 시작으로 공식 생활을 시작했고 여러 중앙 관직을 역임한 후 장년에는 강원도 철원, 충청도 홍성, 강원도 회양淮陽, 경기도 장단, 충청도 괴산에서 차례로 지방의 수령으로 근무하였음이 적혀 있다.

또한 비문에는 그가 평소 의약에 조예가 깊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보인다.

또 그는 약으로 사람 구하기를 즐겨 집안 사람들에게 그 고장에서 나는 약재의 이름과 모양을 익히도록 하여 채집하게 하였고, 중국에서 나는 약재도 구매하여 얻어 두었

다가 채집한 약재와 합해 처방을 조제하여 구하는 사람에게 주었다. 친하거나 친하지 않거나 신분이 높거나 낮거나 가리지 않으니 환자들이 관가의 약방 찾듯 모여들었다.¹³⁾

이러한 기록은 조선시대에 소위 유의儒醫들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는데, 이처럼 의학에 관심이 많고 주민의 구료救療에 힘썼던 인물이니만큼 지인 정렴에게서 희귀본 의서를 전해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맥결리현비요脈訣理玄秘要』라는 책의 명칭은 “맥결의 이치와 오의奧義의, 비밀스러운 요체”로 풀어볼 수 있다. 책 이름만 보아서는 다분히 현학적인 분위기 내지는 신비스러운 느낌을 받게 되

13) 又好以藥濟人，使家習其鄉產名狀而採之，其自中國來自，亦購而得之，合而劑之以應求者。無問親疎貴賤，病家走之如官局焉。

지만 이는 단지 수사修辭일 뿐 실제 책의 내용은 지극히 쉽고 간단한 것, 즉 이간성易簡性을 지향한 송대 서원학과西原學派의 맥학 전통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조선에서 이러한 책이 간행된 것은 당시의 의학 학습자들에게 결코 쉽지 않았을 한의 진단의 핵심을 파악하는데 좋은 길잡이가 되었을 것이다. 홍지한이 이러한 책을 보급한 것은 궁극적으로 “수민후생壽民厚生”에 그 뜻이 있었다 하겠지만 수민후생을 이루기 위한 의학의 학습에는 핵심적인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교재가 꼭 필요함을 그는 잘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또한 맥학의 이간성을 추구했던 『맥결리현비요』는 단지 학습의 편의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하는 주제를 넘어 맥상의 기본 물리량이 무엇인가 고심하는 현대 맥진 연구자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